

第237回國會
(臨時會)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동 의안에관한전원위원회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3月28日(金)

場 所 第1會議場

議事日程

1.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동의안에관한건

審査된案件

1.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동의안에관한건 1

(17시05분 개의)

○委員長 金台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동의안에관한건

○委員長 金台植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
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전원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개의하기로
하였으며 오늘은 열세 분 위원의 발언을 듣고 정
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
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인당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沈在哲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在哲 委員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 위
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쟁이 끝나면 그다음 초
점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이라크전쟁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
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과병문제
를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은 이라크전쟁의 성격문
제가 아닙니다. 과병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우리
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

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
는 미국을 제쳐 놓고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
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기초적인 정
보조차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 되
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병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한미 공조가
어긋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과병 결정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고뇌에
찬 것이었으면 당연히 그 고뇌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동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50여 명의 반대 의원 중 3분의 2가 넘는 수
가 민주당 의원입니다. 야당은 고사하고 집권 여
당인 민주당의 반대 의원에게조차 대통령은 그
흔한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설득하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
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식 국가기구에서 이미
결정된 대통령의 방침에 반대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과병 반대 시
위에 대해서도 "시위를 자제하십시오."라고 호소
하기는커녕 시위는 국민의 권리라고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검사들하고는 토

론하시면서 파병을 반대하는 각계각층과는 왜 토론을 통해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면 평화를 사랑하고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파병에 찬성하면 전쟁을 좋아하고 반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노동단체에서는 파병에 찬성하면 대선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신주류 의원들의 파병 반대에 대해서도 전혀 설득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계십니다. 반대하더라도 그냥 놔두어도 국회 통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 명분도 실리도 몽땅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정략적 계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통과는 통과대로 되면서도 이른바 신주류 의원들께는 전쟁 반대, 평화 사랑, 개혁, 그런 명분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고 파병을 찬성하는 구주류나 한나라당 의원들께는 전쟁 옹호론자, 반평화주의자, 반개혁적, 이런 이미지를 덧씌우겠다는 정략적인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설득하려는 노력,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욕먹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파병에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찬성하기가 곤란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이라크에 보낼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설득을 하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직접 나와서 왜 파병을 해야 하는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국회에 찬성을 요청하십시오.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론 통합의 중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파병안이 처리가 되면 국론 통합은커녕 국론 분열의 출발

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관들께서는 저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沈在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張泰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泰玩 委員 새천년민주당 張泰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이번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나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미방위체제가 우리의 휴전선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헌을 수호한다는 국민적 생존의 차원에서라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명분이나 논리에 앞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돕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을 이번에 돕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도 상실한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 내 반미감정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작전 재배치 또는 일부 감축 또는 궁극적인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라크전 파병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우리의 안보에는 실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물론 전쟁은 반대하지만 한반도 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미국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한미안보협력체제 유지 외에는 그 대안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 본질이 우리의 안보를 불모 삼아서 미국과 담판을 시도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라크전 파병은 앞으로 한미안보동맹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파병이 무산된다면 한미안보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쟁이 종결된 다음에는 분명

히 북한의 핵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어떤 경우에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전 파병을 통하여 한미간 혈맹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다져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 준 UN 21개국의 연 지원병력이 3년간 135만여 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중 89%에 해당하는 120만여 명이 참전하여 그 중 16만 명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한국을 지원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당시 주한UN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의 외동아들도 한국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의 군사적인 면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재발 시에 우리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화학무기 약 5000t을 6개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고 또한 연간 1만 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화생무기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정보, 첩보에 의할 것 같으면 거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거리가 1300km인 노동1호 미사일 100기를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고 또한 50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600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 1만 2500문의 지상포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의 어느 지점에도 그들의 가공할 5000t의 화생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생무기 5000t이라는 것은 그중 종류에 따라서 5km만 서울 상공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노출된 인원이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나게 놀라운 위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적의 화생무기를 포함한 전쟁에 관련되는 정보와 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 국군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인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만이 이와 같은 적의 화생전 능력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극복하고 또한 강한 군사력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국가의 실익으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어떤 논리와 명분을 앞세워서 그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를 지켜주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면서 국방장관께서는 제가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관련해 우리 한국 국민의 생존에 관련되는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張泰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질의를 하시면서 장관을 지목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장관들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섞어 가면서 5분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張光根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光根 委員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張光根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언 자체를 저희 한나라당 쪽을 향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의 태도에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발언을 한 우리 한나라당 沈在哲 위원의 발언에 좀더 보충적인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盧武鉉 대통령에게 제가 드리는 충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리고 제 발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沈在哲 위원께서, 이번 파병안의 제일 선결적인 문제는 결국 국군통수권자인 盧武鉉 대통령의 태도에 있다, 이런 지론을 폈습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군파병동의안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국군통일 과정을 거치는 절차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군파병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盧武鉉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던져 놓고 과연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불투명하고 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沈在哲 위원 얘기대로 얼마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사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엄청난 공중파 방송까지 동원하면서 검사들과의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직접 주 당사자인,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에서, 지난번에 검사와의 대화는 단 이틀 만에 전 공중파 방송을 동원해서 토론회를 마련하는 신속무비한 스피드를 보였는데 왜 이번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일단 공을 국회로 던져 놓고 침묵하는지 저는 그 문제를 우선 盧武鉉 대통령에게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오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마는 오늘 중앙일보 김두우 정치부장의 '노트북을 열며'라는 내용이 아마 현재 盧武鉉 대통령이나 현 정부여당의 내막을 그대로 읽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을 보면 야당에게만 악역을 맡기려는 정치를 지금 盧武鉉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증견 언론 기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라크 전 지지파병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盧 대통령은 내심으로 이번 전쟁을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전략적 선택의 그 내용의 본질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들면 오늘 지구당에서 떠나올 때 저희 지구당사를 전부 경찰 병력들이 에워

쌌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총련 학생들이 야당 지구당사를 전부 점거 농성을 할 계획이 있다는 첩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당사에 경찰병력이 동원됐다, 또한 6시 이후에는 불편하지 않으시면 지구당사를 좀 비워 주시는 것이 경비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한총련 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를 한다면, 아까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야당 당사를 향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얻고 야당 당사를 점거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라크 파병안의 주 제안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한총련 학생들 또한 야당 당사를 점거 농성하는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盧武鉉 대통령을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盧武鉉 대통령이 한총련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청와대 점거농성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장관께서는 일단 盧武鉉 대통령에게 우선 첫 번째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 검사들과의 대화처럼 이 시민단체나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과 함께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지금 반대 여론을 좁혀 나갈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한번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盧武鉉 대통령이 이번 이 사안을 통해서 국론통합보다는 국론분열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내심에 두고서 그 의미를 노리고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대단히 앞으로 국민적인 역사적인 그런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盧武鉉 대통령이, 날짜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일 우리가 파병을 하든 안하든 결론을 안 내리더라도 이라크전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검사와의 대화처럼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국민들과의 대화를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공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지

금 나와 있는 장관이 국방부장관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물론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도 계십니다마는 일단 국방부장관께서 그 문제를 대통령에게 꼭 정식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權泰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泰 委員 金權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열세살 먹은 미국 소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샬롯 엘더브란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할 때 그 폭탄은 군복을 입은 사담후세인의 얼굴이나 군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400만 중에 열다섯 살 이하가 그 절반인 1200만인데 그런 어린이들의 팔 다리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미국 소녀의 절규가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두 발이 절단된 이라크 소녀를 안고 있는 절망적인 이라크인의 사진이 모든 언론매체들에 실린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이라크에 대해서 무력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이런 안보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는 외교통상부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權泰 委員 그러시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1차 결의안은 있습니다.

○金權泰 委員 2차 결의안은 없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렇습니다.

○金權泰 委員 우리나라에는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아직 깃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렇습니다.

○金權泰 委員 그러면 이라크전쟁은 불법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제여론이 많은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거기에는 논란의 여지

가 있습니다.

○金權泰 委員 좋습니다. 여하튼 유엔안보리 결의는 없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1차 결의는 있었습니다.

○金權泰 委員 압니다. 2차 결의는 없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金權泰 委員 그런데 이라크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하면 불법적인 논쟁에 휘말리겠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저희들은 이라크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金權泰 委員 유엔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UN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의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제1차 결의에서는 이라크가 이것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결의안이었습니다. 그 결의안에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金權泰 委員 좋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라크가 독재국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량살상 무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렇습니다.

○金權泰 委員 두 번째 대량살상 무기 의혹에 대해서 한스 블릭스 사찰단장은 몇 달 기간을 주면 보다 클리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金權泰 委員 이 두 가지 이유로 미국이 주도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면 이것에 비추어볼 때 북한도 독재국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金權泰 委員 북한이 미국 부시행정부에 의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金權泰 委員 그러면 미국이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하면 똑같은 이유로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이라크하고 북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자기들이 신고한 것을 특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

니다. 그러나 북한의.....

(「마이크 설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나와서 발언해요」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台植 金權泰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 연장선상에서 전원회의를 한다면 똑같은 방법의 일문일답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준비를 위원장으로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장관석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단 간의 합의가 일괄해서 5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난 후에 장관들이 나와서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답변시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金權泰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라크를 침공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이 이라크를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한다면 독재국가이고 핵무기, 핵물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이 침략행위를 할 때 우리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정에서 행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나 담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명예스럽고 불법적인 전쟁에 우리가 지지하고 참여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명분도 잃고 도덕적인 일관성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미국

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부결시킨 터키 의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터키는 이라크를 북부로부터 밀고 들어가는 데 반드시 확보해야 될 요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제안도 거절한 채 담대하게 부결시킨 터키 의회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국민이 80%에 이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국민적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국론분열이 되고 국민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한나라당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민주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불행히도 영도적 대통령제가 압도를 해서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는 행태가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노력하고 국민의 성원 속에서 얻은 것이 이른바 당권과 대권의 분리입니다. 정당이 민주화되는 큰 발걸음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부의 독자적인 의견과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가질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뿐 아니라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과 교섭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터키 의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독자적인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발자국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행정부 견해는

찬성이고 입법부의 견해는 파병반대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그러하듯이, 미국의 행정부 견해는 예스이고 입법부는 노를 통해서 대외적인 협상력을 높이고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봐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작은 제2의 일본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으로서 작년 6월 월드컵 때 온 국민이 가슴 속으로 외쳤던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심각한 고뇌를 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활발한 토론 이후에 동의안을 반대하는 표결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루어냈다, 그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신뢰가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특정 위원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경사된 입장의 사회자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자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우리가 오늘 소화시키는 시간이 2시간이면 법적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元雄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 委員 존경하는 金台植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개혁국민정당 金元雄입니다.

인구 2330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이 작고 초라한 나라를 상대로 초강대국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후세인 독재를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을 독재자로 만드는 데 앞장서 지원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라크는 미국의 우방국가였습니다. 미국이 후세인의 독재체제를 지원, 강화했으며 대량살상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은 말 잘 들던 후세인이 지금은 강대국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뿐입니

다.

미국이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국가를 만든 예가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미국이 지원해서 패망한 월남의 고딘디엠 정권이 민주정권이었습니까?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미국이 세운 새로운 아프간 정부가 민주정부입니까?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협력할 또 다른 독재자를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확고한 한미공조만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확고한 한미공조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종속적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타성이 한미공조만이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발상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파병을 하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는다고요? 그러나 이처럼 주관적인 희망과 기대에 근거하여 외교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시정부가 파병에 대한 고마움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만큼 신의에 입각한 정부입니까? 부시정부는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약속을 파기해 온 정부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서명을 철회했으며 이라크 침공을 위해 UN체제까지 유린했습니다.

金泳三 정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만 충실하였으나 94년 북핵사태 때 미국은 한국입장을 무시하고 북폭 감행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파병을 하면 미국은 고맙다고 생각하기보다 종속국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한국군 파병, 동맹국과의 관계가 불가피하다고요? 캐나다와 미국 간보다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요? 우리보다 경제적 사정이 훨씬 열악한 터키도 집권당이 원내 3분의 2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터키기지의 미군 사용을 부결시켰습니다. 우리보다도 대미 경제의존도가 훨씬 높은 멕시코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UN안보리 이라크 관련 2차 결의안 토의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 소속의 이사국들은 온갖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이들 파키스탄, 칠레, 기니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파병한다면 국제사회

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국가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도덕한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의 용병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라크가 불바다가 되면 내일은 한반도가 부시가 벌이는 전쟁게임의 위험한 놀이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침략전쟁에 파병한 나라가 한반도 전쟁을 반대할 때 국제사회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짐시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내가 짐시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다리 저는 이웃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나는 장애인인 아니니까요.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았습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秉浩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秉浩 委員 한나라당 金秉浩 위원입니다.

졸전에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실히 들으시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보고에서 “정부는 테러위협 제거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해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이라크전에 국군부대를 파견코자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뢰지원단을 파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상자 및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내용은 이라크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동맹군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적십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애매모호하고 기본적인 취지가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파병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돕고자 하는 것이 이라크군인지 동맹군인지 분명

치 않습니다.

또 “이번에 파견하고자 하는 건설공병도 전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투공병이 아니라 전쟁국면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투입되어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교량 및 도로 보수 등 전후 복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지 주민 및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국방부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라크를 도우러가는 것인지 동맹국을 지원하러 가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 및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는 것은 이라크 주민과 이라크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이라크에 대해서 국위선양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원래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파병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투공병이 아니라 전쟁국면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투입되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교량 및 도로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국면이 안정화되는 단계가 언제인지? 국방부는 이번에 파견하는 우리 건설공병단이 5월경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되었을 때 전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지, 더 치열하게 될지, 소강상태에 빠질지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5월이 되어서도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우리 군은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때의 건설공병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동맹국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이라크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평화봉사단과 같은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지 않게 애매모호한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론을 분열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바로 盧武鉉 정부의 전형적인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쉽게 말하면 남의 살바를 가지고 씨름하는, 국민 기만적인 치졸한 행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 앞에 명쾌하고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면 역전의 용사들이 자원해서 이라크에 갈 수도 있다든 애

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만약에 참전·반전으로 국론이 분열될 때 그런 용병들이 나온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고 명쾌하게 군대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南宮皙 위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부총리와 산업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모두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宮皙 委員 용인 출신 南宮皙 위원입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盧武鉉 대통령이 파견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의심하는 발언을 곁들여 해 주시는데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민주주의국가 국회에서 찬반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파병을 지지하는 분이나 혹은 반대하는 분이나 어느 쪽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입장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파병을 지지합니다.

본래 전쟁은 다 악입니다. UN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전쟁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전쟁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본래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50년 한미관계의 공조는 우리가 80불대에서 1만불대 시대까지 오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혹시 다른 이유로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로 금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지합니다.

아까 張泰玩 선배 위원님께서서는 6·25때 16만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3만 7000명의 미국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 가 보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는 그 비석에 이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14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3만 명에서 4만 명의 미군 청년

들이 계속 우리 안보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통계를 보면 71년도에서 2002년까지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시장을 열어 줘서 4552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82불에서 1만 불까지 오는데 미국이 시장을 열어 줘서, 동맹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또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200만의 한국 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박사가 우리나라 전체 박사의 20%인 1만 44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결정적인 제 생각은 앞으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같이 피를 흘려 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군인들이고 또 필요하면 증파를 할 수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강대국 네 나라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균등한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은 균등한 외교관계 플러스 알파다, 그 동맹관계가 지나간 50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쟁의 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금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파병을 지지합니다. 정부원안대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시간을 58초나 남겨 주시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富謙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富謙 委員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金富謙 위원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金槿泰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UN의 지원을 받고 UN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UN의 결의 없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앞으로 대UN 및 국제정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몇몇 위원들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어떤 조항, 어떤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추악함은 알고 있지만 기왕 발발한 전쟁인데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위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소위 이른바 국익론의 허실에 대해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라크전을 지지해 주고 파병해 주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냉철하게 보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예방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결심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 4500만 대한민국의 선의의 행동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 이런 것을 고려하고 정치적 결정을 할지, 정책적 판단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북한에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전쟁 역지력으로서의 군사력은 이라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라크처럼 미국이 쉽게 보고 덤비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가 전쟁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고민

하시고, 국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왜 정부가 이렇게 성급하다시피, 아니 호들갑을 떠다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빨리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 결정을 내립니까? 그동안 盧武鉉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소위 전술적인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분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 15분 전화통화를 한 모양인데 그 이후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서두르고 자세가 바뀌어졌습니까? 이 점을 반드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도대체 부시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중대한 국사 문제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당략의 문제처럼 치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안 친해서 이 전쟁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터키 의회가 기지사용료 260억 불을 받기로 확정 받고도 60억 불을 더 내놓으라고 아직까지 길을 터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파병결의안은 반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무슨 계산이 있어서 저러는지 아니면 그저 실속도 없이 마음만 급해서 저러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따져야 하고 국민들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이번 전쟁이 쉽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월 입시국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니 그때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또 盧 대통령은 무슨 고민 때

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정확하게 듣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 보고 난 후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크 어느 전선에서 모랫바람 속과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해매는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 그리고 공습의 폭탄 속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과 피, 울부짖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어느 신문에 실린 이라크 전 중군 여기자가 쓴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나도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모래 먼지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 전쟁이란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내건다 해도 결국 야만 그 자체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範九 委員 오늘 이렇게 자발적으로 출석해주신 경제부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전원위원회이고 또 발언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여러분의 핵심적이고 내용이 있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주요 명운이 걸려 있고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 동의안 처리를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전원위원회가 성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께서 소상한 답변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 받았는지 또 병과나 병력 규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요청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포로감시요원 추가 파병 요청을 둘러싸고 언론마다 보도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포로감시요원으로 우리 군대의 추가 파병요청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았는지 여기

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포로감시요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뼈아픈 역사적 상처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다릅니다. 과거 일제 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한국인들 중에 연합군포로수용소 감시요원으로 일했던 사람 중 130여 명이 B·C급 전범으로 몰려서 그 중 23명이 처형됐고 27명이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라크포로감시요원 파병요청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있는 미 중부사령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송하는 화면을 보면 부시 대통령 뒤쪽에 한국군 현역 중령이 배석하고 있는 사진이 방송되고 있어서 구구한 억측을 넣고 있는데 왜 우리 현역 장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이 파병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령은 헌법 제5조1항과 제60조2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5조1항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고 있고 UN 지지도 얻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한 전쟁인지, 이것이 침략적 전쟁이 아닌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3월 26일 UN안보이사회에서 선준영 UN주재 한국대사가 연설했습니다. 연설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지난 12년 동안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가 무장해제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동맹을 이뤄 취한 행동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후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UN무기사찰단장인 한스 블릭스는 3월 7일자 UN안보리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대량살상 무기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고 특히 그는 이라크 측이 전략적으로 예민한 시설들, 예를 들면 대통령궁 등에 대한 사찰까지 허용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찬양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미·영의 이라크 침공을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후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산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이라크 파병문제는 여러 가지 국익이 걸려 있는데 우리 경제문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이 장기화할 때 파병에 따른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산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진출했거나 교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군이, 우리 정부가 파병을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라크로부터의 원유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전략적 사고에서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구체적 보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 성당, 교회 등에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국회의 정문을 들어서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그 추위 속에서 목에 구호를 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구호는 국회의원인 저에게 대단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구호는 이랬습니다. “국회는 우리를 전쟁범죄국 국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 委員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죄 없는 이라크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지지 선언하고 파병안에 찬성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 약소국의 설움과 강대국에 기대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이 아픈 현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간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는 이 전쟁, 이 비극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익을 얻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수많은 인명피해, 사회문화적 파괴, 그리고 창조적 인간의 의식을 망각시킨 이런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자, 장관들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전쟁이 국제법상 위반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 120만 명이 현재 기아상태, 사망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비명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복수전 즉, 테러전에 한국인이 어찌면 희생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아랍국가들이 한국을 전범국가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피해와 후유증 이것을 어쩔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 것인지, 13억 아랍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모르지만 13억 아랍인들의 증오심과 복수심,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하는 테러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그런 대책하에 전쟁 지지를 선언했고 파병을 찬성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북한에 정말 핵이 있는지 오늘 밝혀 주십시오.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핵이 있다, 몇 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만 찬성할 수 있는지 반대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무엇으로 보장받았습니까?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보장받았습니까?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증하게 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문명의 요람지인 바그다드 폭격, 91년 걸프전에서 막대한 문화유적이 파괴되었고 겨우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때 교전국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헤이그협약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가입국가가 103개국이나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거대 군수회사와 석유재벌을 등에 업은 미국 정치권의 이 더러운 전쟁정책, 이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일패권시대를 겨냥한 오로지 강대국들만을 위한 그들의 이익전쟁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국제적으로 1928년 이후에 어떤 전쟁도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침략에 대한 자위권 발동, 두 번째는 국제사회 전체 합의에 의한 집단적 방어전쟁 두 가지인데 UN헌장 제7장입니다. 이번 파병, 전쟁지지는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파병을 하려 하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제법상 규정을 지금 제가 밝혔으니까 정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문명충돌입니다. 문명충돌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 이와 같은 문명충돌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전쟁 공포에 휩싸일 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국 편제에 건설공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병을 보낸다고 주장하는데 편제에 없는 건설공병단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권위원회에서 전쟁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향기를 가진, 좋은,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반대토론 때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台植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 委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를 출신 沈載權 위원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동료 한나라당 위원님 일부에서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의 성명 문제 또 대통령께서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용인하는 이런 이야기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성명도 또 시위도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의 태도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검토한 사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 국회에서 충분히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라크전쟁 파병동의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아까 헌법 위반 문제라든가 국제법 위반 문제 이런 문제 등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국익과 관련돼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의 이유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명분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법과 헌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은 바로 우리의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 곧 전략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면 바로 세계의 관심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이라크전이 빨

리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곧장 북한 핵으로 대응목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량 살상무기 사찰과 무장해제가 잘 되어 가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을 지원하고 파병까지 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 위협성까지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대량 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미국의 전쟁논리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한반도만은 그 예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1테러 이후 우리는 국회 만장일치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에 파병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인정하여 부드러워졌습니까? 오히려 부시 행정부는 곧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핵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등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대북 강경정책을 오히려 확대했을 뿐입니다. 과연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겠습니까?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북핵문제 모두 자신들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며 한국정부의 입장은 부차적일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병 반대가 곧 한미동맹 관계의 포기 내지 결정적인 손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전에 반대했다고 해서 나토체제가 붕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미국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안전보장을 받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접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핵관련시설도 국제사회의 투명한 검증절차를 받겠다고 이렇게 공언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핵문제와 북한체제의 보장 등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북한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국가요, 북한에 의 폭격 검토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미국의 뜻에만 따르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만약 북한에 대한 폭격이 미국의 국익에 좀더 부합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이라크 참전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병 반대가 반미 여론 등에 의해 분개해 온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군 또는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주둔과 배치문제 역시 그 자체의 논리로서 미국의 국익과 연계하여 검토될 문제입니다. 결코 이라크 파병과 연계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이라크전 파병이 국익을 저해하고 관행적 미국 추수행위에 불과하며 지금이야말로 한미관계의 동반자적 수평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UN헌장을 위반한 침략전쟁을 찬성할 것인지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국익을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을 준 파병동의안에 찬성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21세기, 새롭게 한미 동맹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徐秉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秉洙 委員 존경하는 전원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출신 徐秉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權泰 위원님께서 전쟁이 합법이나 또는 불법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전쟁은 그야말로 악인 것이고 전쟁은 그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이라크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동의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가의 현재와 미래, 장래에 대한 국익의 차원에서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전 파병안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파병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파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에서 과연 이라크 파병안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 논의의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크전에 대해서 파병동의안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진지한 고뇌 끝에 찬반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회에다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모라든가 시민단체 등 재야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성명을 하고 있고 또 盧 대통령은 그 성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 내 파병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난 12월 19

일 대통령선거 때 盧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입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된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최소한도의 지지자들에게만끔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의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엄연한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결의에 의해서 파병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이 상황에서 과연 인권 차원에서 그 결정된 사항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많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盧 대통령이 이라크에 우리 의무대와 공병대를 파견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진실한 의의가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파견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다가 파병동의안만 제출해 놓고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파병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소신 없는 태도로 그냥 마무리할 것인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많이 헛갈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의견과 주장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신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논 과정에서 반대외사가 있더라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따르고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특히 이라크 파병 문제는 50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한미관계, 대외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 복잡하고 미묘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응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냉정히 계산해서 국론을 통일한 가운데 파병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처리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盧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파병을 해야만 되는 현실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煥 委員 이 나라의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카스라 일본 외상과 태프트라는 미국 외상이 만나서 카스라 태프트 조약을 맺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조약에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정하고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지배를 확정하, 그렇게 해서 1910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인도 지배를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국익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국익, 미국은 미국의 국익, 그리고 인도는 인도의 국익이 있었을 것이고 필리핀과 한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1909년도에 이등박문이 우리의 안중근 의사로 부터 저격을 받았는데 이등박문은 일본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국익에 충실한 애국자요, 안중근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운 국익을 수호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의사당에서 동티모르에 군인을 파견하는 문제를 거론할 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1억 5000만이 넘고 그리고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군사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구 80만에 37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당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동티모르 민중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국익은 있으나 안중근의 국익이 있고 이등박문의 국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익이 있고 한국의 국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미국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타오르는 이라크 민중의 눈으로 죽어가는 자의 눈으로 이 전쟁을 볼 수 있고, 미국의 눈으로 침략하는 눈으로 그리고 엄청난 살상무기를 가진 눈으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지배자, 압제자, 그렇게 해서 세계 민중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세계 민중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국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쓴 시 한 편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읽어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이는 자의 눈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눈으로
나는 오늘,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
불타는 바그다드 어머니의 눈으로
나는 오늘, 내 어린 두 딸아이와
불타는 바그다드에서 죽어가는 어린 딸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 지난날 나의 조국에서 벌어진
무수한 전쟁과
메소포타미아의 모래 언덕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이름이
어쩌면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오늘, 23년 전 광주에서 흘린
어머니들의 눈물과 이라크 어머니들의 눈물이
똑같은 염분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
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오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반대하면서
불바다가 된 바그다드의 호텔방에서,
바리케이트에서 뜯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인간방패인 그들과 우리가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반도에 더 큰 눈물의 폭풍이 밀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을 안고’,

‘나는 지금 화면에서
당신들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살기 위해서 넘은 이라크의 국경을
이제 죽기 위해서 넘는다는 절망의 절규를 듣

고 있습니다

“내 가족 모하드를 만나기 위해 어린 동생과 오빠의 손을 잡고 이라크 국경을 넘었지만.”

“그러나 무자비한 폭격 속에서 불타는 바그다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은 이라크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은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이 나라의 오일이 불에 타고 남은 뒤 수천, 수만의 민간인들의 주검 위에 제국의 깃발이 올라가고 난 후 후세인도 사라지고 이라크 병사들도 사라지고 나서 증오와 적의가 모래폭풍처럼 휘몰아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계를, 어떤 눈으로 전쟁을, 어떤 눈으로 동맹을, 어떤 눈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金榮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자작시를 읽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들으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까 합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 金振杓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範九 위원님께서 이라크전쟁 파병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

셨습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북핵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또한 전후 이라크 복구 작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미 시위 등으로 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내 여론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와 미국 간의 교역이나 또 미국 투자자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정부가 국가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문을 맡기고 있는 골드만삭스사의 전문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국에서 몇십 년 내내 있었던 위협이지만 북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는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라는 것을 외국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매니저블(manageable)한 리스크나 아니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난 3월 13일에 양국 대통령 간의 통화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한미 공조하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통화가 보도된 이후에 월가에서 우리 외평채에 대한 가산금리가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鄭範九 위원님께서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또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하는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파병을 하는 경우에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겠다는 구체적인 보장이 있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한미 관계의 현주소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히려 그 이전에 한미 간의 견해차,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섭섭함 또는 의구심,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다자 대화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는 안 되겠다…… 그런데 북한은 북·미 대화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다자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난 정부지만 임동원 특사가 북쪽에 가서 권고를 했었고 또 이번에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쪽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시켜서 접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첩경이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자 대화와 북·미 대화를 하나의 틀로 묶어낼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강자의 입장에 있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미국이 조금 양보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을 설득해서 다자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찬스를 찾는 쪽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라크전쟁과 관련해서 UN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국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킴으로써 프랜드십을 회복해 가지고 여기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려는 일종의 전략적 계산 때문에 이번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보장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 이라크전 파병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의 소위 래퍼(rapport)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盧武鉉 대통령의 대미정책에 대한 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북

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조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방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沈在哲 위원님의 “이라크전쟁은 현 단계에서 그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보다도 국가의 이익이 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파병문제를 대통령께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토의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張泰玩 위원님께서 한미 안보협력체계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안보동맹은 지난 5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미 관계에서 신뢰와 협조의 분위기를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나하나에 답변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鄭範九 委員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개략적으로 중요한 질의들을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저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반대여론도 상당히 높고 우리 국내에도 그러한 여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일어났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초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라크전보다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안보이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나아가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별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한반도에서의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라크전쟁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느냐는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한미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서 한 달 동안 감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한미관계에 있어서 일부 오해의 부분이나 소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께서 지난 20일 이라크전쟁의 지지성명을 발표하시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과 전화하시면서 한미 간의 신뢰관계가 현재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미 측과 접촉을 하고 있고 필요시는 VTC TV를 통한 회의를 펜타곤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현재 대단히 신뢰의 분위기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다음에 올 한반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위기는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후에 올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부수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국제사회에 동참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명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차후에 안정된 석유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국익의 증진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문제와 우리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鄭範九 委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여러 분들의 몇 가지 질의를 요약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宋錫贊 委員 鄭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세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景梓 委員 그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질의하신 내용에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鄭範九 위원님께서 파병요청의 절차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파병 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문서로 수교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구두로 해 가지고 약 50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여러 나라에 전부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최초에 저희는 1개 공병중대 정도를 보내겠다, 그것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전개해 있는 부대를 그리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다음에 온 연락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하고 있는 공병도 전후 복구에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고, 또 하나 규모에 있어서는 1개 중대를 보내게 되면 혼성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작전이 가능한 단위로 좀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대 규모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포로 감시요원 파견 요청의 진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하루 뒤 얘기입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미국 NSC의 인권담당보좌관이 현재 미국의 작전에 동의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들을 전부 소집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라크 내부에 약 4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전쟁 이틀까지의 초기단계에서 의외로 많은 포로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포로를 다루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그 간담회 내용을 외교부로 정보를 보내 주었고 그 정보가 국방부에도 일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파병에 대한 규모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 언론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시 연설 시 한국 장교가 왜 배석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플로리다의 미 중부사령부에는 현재 약 20개국~40개국 정도의 연락장교단이 나가 있는데 연락장교단은 작전

에 대한 협조의 문제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러한 작전과 관련, 필요한 정보를 본국 정부에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4명이 나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인 김용철 중령이 거기에 참가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날 지원 우방국들의 연락장교들을 같이 초청해서 참석한 것이고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라크 작전의 성격이 침략적 전쟁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비하지만 대략 제가 들은.....

○金洪信 委員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순서대로 답변하면 헛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台植 이렇게 하십시오.

순서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질의하신 위원이 의석에서 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한 가지 참조해 주실 것은 전원위원회 회의가 법적으로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5시 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7시 5분까지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답변을 하고 만일에 답변을 못 들으신 위원들께서는 내일 또 전원위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자세히 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정부 측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해 주시고 시간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金洪信 위원님께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약 10~12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초보적인 수준의 1개~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핵무기의 보유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金洪信 위원님께서 만약에 파병 시 아

랍인들의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중동권 테러단체가 우리 국민 및 교민을 상대로 보복테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라크전 개시에 따라서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중동권 테러 조직이 우리 국민 및 교민을 상대로 보복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테러대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테러 대비는 경찰이 담당하고 국외에서의 테러 대비는 외교통상부 주관하에 국제적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보고드리면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있는 7개 부대 중에 약 3개 부대는 서부 사하라를 포함해서 아랍권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원들의 안위에 대해서도 저희 국방부에서는 현재 각별히 신경써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洪信 위원님께서 우리가 파병했을 때 국익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미동맹관계와 한미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한미군 3만 7000명에 대해서 감축이라든지 재배치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한미 간의 신뢰와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통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에 있는 2개 사단이 이라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지만 전쟁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전력도 일부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우리는 한미공조 문제를 좀더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내는 것은 전투부대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원부대로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

군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적인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후 복구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다 끝났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다음 보고……

○金洪信 委員 현재, 메모를 잘 안 하셨는데요. 건설공병이 편제되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야공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임무에 따라서 편성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병이 소말리아부터 시작해서 앙고라, 아프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무와 수행할 기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설공병을 편성해서 보내고 있고 또 미국에서 요구할 때도 명백하게 건설공병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한국군에는 건설공병 편제는 없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는 그것을 야공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의 편제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에 있는 전투공병과는 다릅니다. 야전공병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파견할 때는 편제를 바꿔서 하는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불도저라든지 건설장비들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金洪信 委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장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金秉浩 委員 하나만 확실히 합시다. 지금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곧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장관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동맹국을 지원하러 가는 것인지, 동맹군을 지원하러 가는 것인지, 평화유지군과 같은 성격으로 가는 것인지 그 성격 구별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평화유지군인지 이라크지원군인지 미

국지원군인지 동맹군지원군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미국과 동맹국군을 지원하려 합니다. 그것이 제1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고드린다면 그 임무와 부대의 성격이 대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분은 미국과 그 동맹국군에 대한 지원입니다.

○金秉浩 委員 공병대도 그렇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공병, 의료 다 똑같습니다.

○金景梓 委員 그러면 공격을 받을 경우 그 공병대의 자위수단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공병이나 의무나 일단 가게 되면 최소한의 자위적인 수단은 편성해서 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金景梓 委員 그러면 건설하다가…… 망치를 들고 있다가 저격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러니까 경계초치는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경험으로 봐서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金秉浩 委員 그러면 도로나 교량을 보수해 줬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라크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대개 이라크 군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개연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군들이 공격해서 올라간 후방에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金秉浩 委員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전진만 있나, 후퇴도 있지.

○國防部長官 曹永吉 내려올 때는 또 전술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金秉浩 委員 그러니까 전진할 때는 미국군을 지원해 주고 후퇴할 때는 이라크군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군은 어느 군을 지원하려 가느냐 이것입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명백하게 전진할 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진하고 난 다음에 그 후방을 지원하는 것이지 전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台植 국방부장관, 됐습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다소 불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차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원위원회 회의는 1일 2시간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 답변은 내일 회의에서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국무위원께서는 내일 회의에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너무나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벌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出席委員(156人)

姜成求	姜雲太	姜仁燮	姜在涉
高珍富	高興吉	具鍾泰	權琪述
權寧世	金景梓	金光元	金槿泰
金杞培	金淇春	金德圭	金滿堤
金明燮	金文洙	金秉浩	金富謙
金相賢	金晟祚	金映宣	金榮駟
金榮春	金榮煥	金玉斗	金容甲
金容鈞	金龍學	金元基	金元雄
金允式	金政夫	金忠兆	金台植
金宅起	金炯旸	金洪信	金晃植
金希宣	南景弼	南宮哲	柳在乾
柳在珪	陸堯相	文錫鎬	閔鳳基
朴槿惠	朴炳錫	朴尙奎	朴相千
朴相熙	朴世煥	朴承國	朴是均
朴洋洙	朴源弘	朴仁相	朴鍾根
朴宗雨	朴鍾雄	朴柱宣	朴振
朴昌達	朴憲基	朴赫圭	朴燻太
裴基善	徐秉洙	徐相燮	徐廷和
偈松雄	薛勳	孫希姪	宋錫贊
宋永吉	宋勳錫	辛卿植	辛基南
申榮均	申鉉泰	沈揆喆	沈載權
沈在哲	安昶律	安泳根	吳世勳

吳 泳 食	吳 長 變	元 裕 哲	元 喜 龍
劉 容 泰	尹 景 滉	尹 汝 雋	尹 榮 卓
尹 鐵 相	李 康 斗	李 康 來	李 敬 在
李 揆 澤	李 洛 淵	李 美 卿	李 秉 錫
李 富 榮	李 相 得	李 相 培	李 性 憲
李 承 哲	李 熾 淑	李 佑 宰	李 元 昌
李 源 炯	李 允 盛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禎	李 在 昌	李 鍾 杰	李 訓 平
李 熙 圭	林 仁 培	任 鍾 哲	林 鎮 出
張 光 根	張 永 達	張 泰 玩	田 塔 源
田 裕 鶴	全 在 姬	鄭 均 桓	鄭 大 哲
鄭 文 和	鄭 範 九	鄭 柄 國	鄭 義 和
鄭 長 善	鄭 哲 基	鄭 亨 根	趙 培 淑
趙 誠 俊	曹 雄 奎	趙 在 煥	趙 漢 天
崔 明 憲	崔 炳 國	崔 鉛 熙	崔 龍 圭
崔 在 昇	秋 美 愛	咸 錫 宰	咸 承 熙
玄 敬 大	玄 勝 一	洪 在 馨	洪 準 杓

○出張委員(12人)

權 五 乙	金 成 鎬	金 一 潤	金 學 元
宋 光 浩	嚴 虎 聲	元 喆 喜	李 良 熙
李 允 洙	李 海 鳳	李 協 協	許 泰 烈

○請暇委員(23人)

姜 淑 子	姜 申 星 一	權 哲 賢	金 雲 龍
金 貞 淑	金 鎮 載	金 泰 弘	金 孝 錫
羅 午 淵	白 承 弘	申 溪 輪	安 商 守
安 澤 秀	李 方 鎬	李 源 性	安 李 仁 基
李 柱 榮	李 浩 雄	任 太 熙	張 誠 源
全 甲 吉	鄭 夢 準	千 容 宅	

○出席國務委員

부 총 리	김 振 杓
재 정 경 제 부 장 관	金 振 杓
통 일 부 장 관	丁 世 鉉
국 방 부 장 관	曹 永 吉
산 업 자 원 부 장 관	尹 永 植

○出席政府委員

의 교 통 상 부 차 관	金 在 燮
---------------	-------